

위기의 카드업계

해결 책임자는... 여신협회장 20명 하마평

회추위, 24일까지 후보자 접수
다수 후보에 '숏리스트' 가능성
내달 중순께 최종선임 찬반투표



카드·캐피탈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장을 뽑는 공식 일정이 14일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료 출신, 민간 출신 등 20여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는 민·관 출신과 관계없이 카드업계에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여신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여신협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서면 결의로 진행되는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일정이 확정된다.

8개 전업 신용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로 구성된 회추위는 15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지원을 받는다. 여신협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면서 올해는 선거에서 '숏리스트'(압축 후보

군)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접수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숏리스트를 통해 후보군을 3명으로 추린 뒤 단독 후보로 차기 여신협회장을 결정한다.

최종 선임은 6월 중순 총회에서 회원사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12대 여신협회장은 6월 15일 임기만료를 앞둔 김덕수 여신협회장에 이어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연봉은 약 4억원에 달한다.

현재 민·관 출신 통틀어 20여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 출신 중에서는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와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사장, 박지우 전 KB캐피탈 사장, 서준희 전 BC카드 사장 등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관료 출신으로는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역대 여신금융협회장>

구분	취임	성명	출신	형태
1대	1998년 7월	민해영	관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 비서관	상근
2대	2000년 9월	유종섭	관 한국은행, 외환카드 대표이사, 신용카드협회장	상근
3대	2003년 12월	이호근	관 제11회 행정고시, 재경부, 비씨카드 대표이사	비상근
4대	2005년 4월	유인완	민 한일은행, 서울증권, 한일투자신탁운용·한국캐피탈 대표이사	비상근
5대	2006년 4월	유석렬	민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생명·삼성카드 사장	비상근
6대	2007년 4월	나종규	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은캐피탈 대표이사	비상근
7대	2008년 4월	이병구	민 삼성생명, 롯데카드 대표이사	비상근
8대	2009년 3월	장형덕	민 씨티은행, 서울은행, 교보생명·비씨카드 대표이사	비상근
9대	2010년 4월	이두형	관 제22회 행정고시,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금융 사장	상근
10대	2013년 6월	김근수	관 제23회 행정고시,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상근
11대	2016년 6월	김덕수	민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상근

차관, 최규연 전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거명된다.

그동안 여신협회장 자리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김덕수 회장은 여신협회장이 상근직으로 바뀐 후 첫 민간 출신 협회장이다.

지난 2010년 회장직이 비상근체제에서 상근체제로 전환된 이후 선임된 이두형 전 회장은 제22회 행정고시 출신

으로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쳤다. 이후 협회장 자리에 오른 김근수 회장 역시 제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카드업계는 출신과 관계없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를 원하는 분위기다.

현재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

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인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법정 최고금리인하, 대출규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민간 출신이든, 관료 출신이든 업계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다"며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활로를 찾아주는 인물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이 차기 협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각종 규제 속에서 업계를 대변하기에는 민간 출신 협회장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카드업계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는, 협상력 있는 관료 출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환율·유가 상승... 수출입물가 3개월째 ↑

반도체 수출물가 9개월 연속 하락세

지난 4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수출입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물가는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9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83.48(2010년=100 기준)로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4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40.95원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66.94달러에서 70.94달러로 6.0% 뛰었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10.7%), 경유

(3.9%)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4.6% 올랐고 화학제품도 1% 증가하며 공산품 수출물가는 0.5% 상승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기 및 전자 기기는 0.7% 감소했다.

특히 D램 반도체 가격이 9.9% 떨어져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시스템반도체를 합한 반도체 수출물가는 5.2% 내리며 전월(3.4%)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88.91)는 전월 대비 1.5% 올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천연가스(LNG)가 7.1% 하락한 가운데 원유(6.9%) 등이 올라 광산품이 3.1% 상승했다. 원유(6.9%), 나프타(6.6%) 등 석탄 및 석유 제품은 4.0% 올랐다.

/김희주 기자 hj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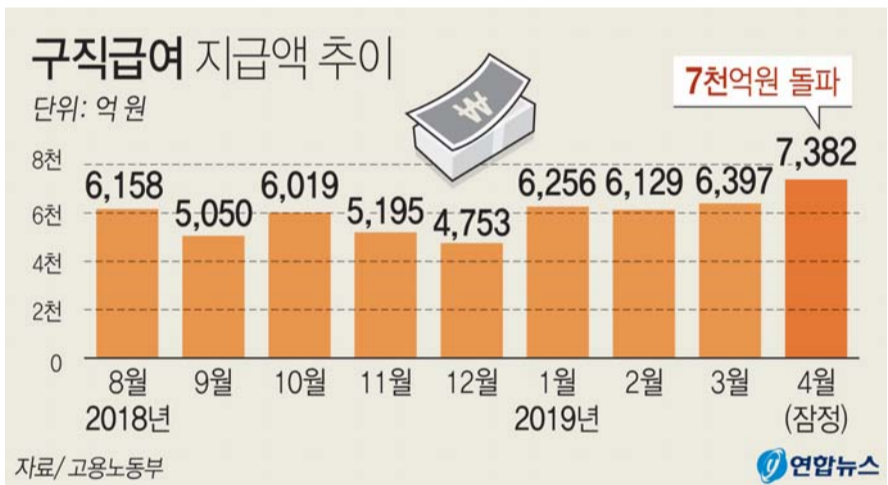
실직자 구직급여 7000억... 전년비 35% ↑

노동부, 4월 노동시장 동향
수급자 52만명 달해... 14%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대폭 늘어남 탓"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작년 동월의 5452억원 보다 35.4%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작년 동월(45만5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명)보다 7.6%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에는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른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음션) : 300,000 → 130,000원
5월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박정원 회장, 재무건전성 정상궤도 올려야

>> 1면 '줄어드는 재계...'서 계속

2018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조 7033억원으로 전년(2조4685억원) 대비 9.5% 급증했다. TV 등 가전사업의 전체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고치인 8.6%를 기록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 회장은 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AI, IoT(사물인터넷), 로봇, 자동차 전장부품 등 첨단사업 분야에서 향후 얼마나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박정원·조원태 경영 능력 검증해야
두산그룹과 한진그룹은 박용곤 명예회장과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박정원

두산 회장과 조원태 한진 회장이 동일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그룹 총수도 한층 줄어들게 된다.

다만 박정원 회장과 조원태 회장은 아직 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월 타계한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4월부터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정원 회장은 탈원전과 건설경기 불황이라는 악재로 실적 부진에 빠진 계열사의 반동을 이끌어내야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특히 신사업부문 경쟁력 강화와 건설장비 계열사의 수익성을 확 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두산그룹의 주요 계열사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양

사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각각 5000억원,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재계에서는 두산 그룹 전체가 이로 인해 재무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 입장에서 경영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주요 계열사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위기 탈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처음으로 총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조원태 회장이 지난해 물벼락 갑질로 시작돼 총수 일가의 횡포와 횡령·배임·탈세혐의까지 이어진 그룹의 악재를 끊고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권 기반을 다지고 주요 계열사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양성운 기자 ysw@